

제 1 교시

국어 영역(A형)

[1~2] 다음은 친구 간 대화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지호: 오늘 들은 [A] '마음을 움직이는 심리학' 특강 재미있더라.  
 승우: 처음엔 들을 생각 없더니, 너 정말 집중하면서 듣던데.  
 지호: 그러게. 우리 반 애들 대부분이 신청하길래 따라서 신청한 거였는데 잘한 것 같아.  
 승우: (웃으며) 뭔가를 결정할 때 다수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 쪽으로 마음이 움직인다는 특강 내용이 딱 네 얘기였구나.  
 지호: 그러네. ㉠년 특강에서 들었던 내용과 관련된 경험 없어?  
 승우: 당연히 있지. 한정판으로 나온 상품이라고 하면 웬지 사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 이것도 특강 내용과 관련되는 거잖아.  
 지호: ㉡ 한정판으로 나온 상품이라..... 맞아. 한정된 것이어서 일부 사람들만 누릴 수 있다고 하면 사람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잖아. 특강에서 말한 희소성의 원리네.  
 승우: 맞아. 그런데 강의는 재미있게 잘 들었는데 어째 좀 피곤하다. 어제 잠을 못 자서 그런가?  
 지호: 왜? ㉢아, 아까 반장이 그러던데 너 이번 학기에 동아리 부장 돼서 학술제 준비로 바쁘다고 하던데 그것 때문에 할 일이 많은 모양이구나.  
 승우: 응. 처음 해 보는 일이라 그런지 할 일도 많고 어렵네.  
 지호: ㉣내가 작년에 학술제 준비를 해 봐서 아는데 일이 많아서 혼자 하긴 벅차지.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 내가 작년에 해 본 경험도 있으니까 도와줄게.  
 승우: 진짜? 정말 고맙다.  
 지호: ㉤아! 그리고 보니 이것도 오늘 들은 특강 내용과 관련되는구나.  
 승우: 우와, 그러네. 상대방과 공통된 경험이 있으면 상대방과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어 마음이 움직일 수 있다는 그 내용.  
 지호: 맞아. 정말로 얻은 게 많은 특강이었어.

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질문을 통해 특강에서 들은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승우의 경험을 묻고 있다.
  - ② ㉡: 승우 말의 일부를 단서로 하여 승우의 경험이 특강과 관련되는 내용임을 확인하고 있다.
  - ③ ㉢: 반장의 말을 통해 얻은 승우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승우의 상황을 추측하고 있다.
  - ④ ㉣: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승우가 처한 상황에 공감하고 있다.
  - ⑤ ㉤: 특강에서 들은 말을 인용하여 승우의 상황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확인하고 있다.

2. <보기>는 [A]의 일부이다. <보기>의 [가]에 들어갈 학생의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강사: 오늘 특강 잘 들으셨나요? '다수가 보이는 경향, 희소성, 상대방과의 공통된 경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이야기였는데요. 지금 제시하는 사례를 특강 내용과 연결 지어 말해 볼 학생 있나요?

[사례]

“경희루 내부 특별 관람 사전 예약제가 실시된다는 소식을 듣고 예약을 해서 와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 문화재에 관심이 없었는데 한시적으로 개방되는 데다가 특별 관람 가능 인원이 소수로 제한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깐 왠지 경희루를 관람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학생 : [가]

강사: 좋아요. 제시된 사례를 특강 내용과 잘 연결했네요.

- ① 경희루 내부 개방으로 문화재에 대해 평소 갖고 있던 관심이 더욱 커졌다는 내용이니깐 희소성의 원리를 보여 준다고 생각합니다.
- ② 경희루를 관람해 보고 싶던 차에 사전 예약제 실시 소식을 듣고 예약을 했다는 내용이니깐 다수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하려는 심리를 보여 준다고 생각합니다.
- ③ 한시적으로 개방되는 경희루의 관람 인원이 소수로 제한되어 있다는 소식에 경희루를 관람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내용이니깐 희소성의 원리를 보여 준다고 생각합니다.
- ④ 특별 관람 신청을 사전 예약제로 받는다는 소식에 경희루를 관람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내용이니깐 사전 예약한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심리를 보여 준다고 생각합니다.
- ⑤ 경희루가 한시적으로 개방된다는 소식에 경희루를 관람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내용이니깐 상시적으로 문화재를 관람하는 사람들과의 공통된 경험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심리를 보여 준다고 생각합니다.

[3~5] 다음의 (가)는 발표 준비를 위한 학생들 간의 대화이고, (나)는 수업 중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 1: 이번에 자유 주제로 학급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과제 있잖아. 우리 모둠은 아직 어떤 내용으로 발표할지 정하지 못해서 고민이야. 좋은 생각 없니?

학생 2: 최근 세계 로봇 대회에서 우승한 우리나라 로봇 '휴보'가 여러 방송 매체에서 보도되었잖아. 로봇에 대해 발표해 보는 게 좋겠어.

학생 1: 그거 좋다. 그런데 로봇에 대한 내용은 너무 포괄적이어서 다룰 내용을 좀 좁히면 좋겠는데, 어떤 내용을 다뤄야 친구들이 흥미롭게 들을까?

학생 2: 이걸 어때? 로봇이 우리 삶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로봇의 발전과 관련하여 발표해 보는 거야.

학생 1: 괜찮다. 이번 발표는 친구들이 좋아할 것 같아.

(나)

[A] 여러분, 앞의 화면을 잠시 봐 주세요. (로봇 영상을 보여 주며) 여기 등장하는 로봇은 올해 세계 로봇 대회에서 우승한 우리나라 로봇 '휴보'입니다. 두 발로 걷고 층계를 오르 내리는 것이 사람과 비슷한데 참 신기하죠? 이 시간에는 이런 로봇의 발전과 인간의 삶에 대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B] 먼저 여러분께 질문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로봇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뉴스 보도나 영화에서 봤던 여러 형태의 로봇이 생각날 것입니다.

[C] 자, 여기 사진을 봐 주십시오. (사진을 보여 주며) 이 당시의 로봇은 사람을 닮은 데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후에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의 팔 모양을 한 로봇이 만들어지고 최근에는 '휴보'처럼 인간의 신체와 유사한 형태를 갖추어 두 발로 걷는 로봇이나 인간의 감정을 읽는 로봇까지 등장하였습니다.

[D] 그렇다면,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로봇들은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주고 있을까요? 초창기 로봇들은 운반이나 부품 조립과 같은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인간이 해야 할 일들을 대신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로봇이 개발되어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을 구조하는 등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을 대신해 줌으로써 인간이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대화 가능한 로봇이 등장하여 인간과 소통할 수 있는 친구의 역할까지 해 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E] 향후에 기술 발전에 따른 로봇의 상용화가 가속화될 것이며 그로 인해 우리는 보다 많은 시간적 여유와 삶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봇 상용화에 대한 긍정적 전망은 로봇 시장 규모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2014년에 국내 로봇 산업 실태를 조사한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로봇 시장 규모는 2013년 2조 2,210억 원에서 2018년 7조 원으로 성장해 약 3.2배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을 수 있다는 등 로봇 기

술의 발전이 인간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이 로봇에 지나치게 의존할 때 발생하는 문제일 뿐, 인간이 로봇을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이어질 로봇의 발전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 (가)에서 '학생 2'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대방의 의도를 질문을 통해 확인하며 말하고 있다.
- ② 상대방의 질문에 대해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고 있다.
- ③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말하고 있다.
- ④ 상대방의 발언 내용을 요약하며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 ⑤ 상대방의 발언 가운데 이해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고 있다.

4. [A]~[E]에 활용된 발표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청중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 로봇과 관련된 최근 사례를 제시하며 발표를 시작하고 있다.
- ② [B]: 청중과의 상호 작용을 위해 로봇이란 말이 무엇을 떠오르게 하는지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있다.
- ③ [C]: 청중들이 발표 대상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매체를 활용하여 로봇의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 ④ [D]: 로봇의 형태가 변화해 온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예를 들고 있다.
- ⑤ [E]: 국내 로봇 시장 규모의 증대에 관한 보고서를 근거로 발표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5. 다음은 (나)를 들으며 학생이 메모한 내용이다. ㉠~㉢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로봇의 발전 과정**

- 로봇 하면 떠오르는 것은? ..... ㉠  
: 영화 ○○에서 로봇이 권투하던 장면이 떠오르는군, .....

- 사람을 전혀 닮지 않은 로봇에서 점차 사람을 닮은 로봇으로 변화함, 사람의 감정을 읽는 로봇의 등장 ..... ㉡  
: 과학 시간에 배운 '인공 지능 기술'이 적용된 사례이겠군, .....

**• 로봇으로 인한 인간 삶의 변화**

- 인간의 노동을 대신하는 로봇부터 친구가 될 수 있는 로봇까지 여러 로봇이 등장함, ..... ㉢  
: 1인 가구가 증가한다는데 로봇이 인간 소외 현상의 대안이 될 수 있겠군, .....

**• 로봇 발전에 대한 전망**

- 로봇 시장 규모의 증대  
- 로봇의 상용화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함,  
-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을 수 있다는 부정적 견해를 비판함.

- ① 발표 내용을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과 관련지으면서 들었다.
- ② 발표자가 제시한 자료가 신뢰할 만한지를 따지면서 들었다.
- ③ 발표자가 언급했던 내용들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면서 들었다.
- ④ 발표 내용이 사실인지 발표자의 의견인지를 구분하면서 들었다.
- ⑤ 발표자의 의견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는지를 판단하면서 들었다.

[6~8]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작문 상황**

- **작문 과제**: 교지에 글을 쓰기 위해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정보 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글을 써 보자.
- **예상 독자**: 교지를 읽는 학생들
- **글 쓰는 목적**: 우리 학교 학생들의 인터넷 정보 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알림.
- **자료 수집 방법**: 우리 학교 학생 대상의 설문 조사

**(나) 글의 초고**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한 현대의 청소년들은 인터넷을 통한 정보 ㉠ 이용이 적극적이다. 인터넷은 무한한 정보의 ㉡ 바다임으로 청소년들은 인터넷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는다. 그런데 인터넷 정보들 중에는 부정확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신의 이용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를 선별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이러한 인식하에 인터넷 정보를 이용하고 있을까? 이를 ㉢ 알아보려면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조사 항목으로는 인터넷 정보의 신뢰성 평가 여부, 인터넷 정보의 이용 방식 등 네 가지였다. 그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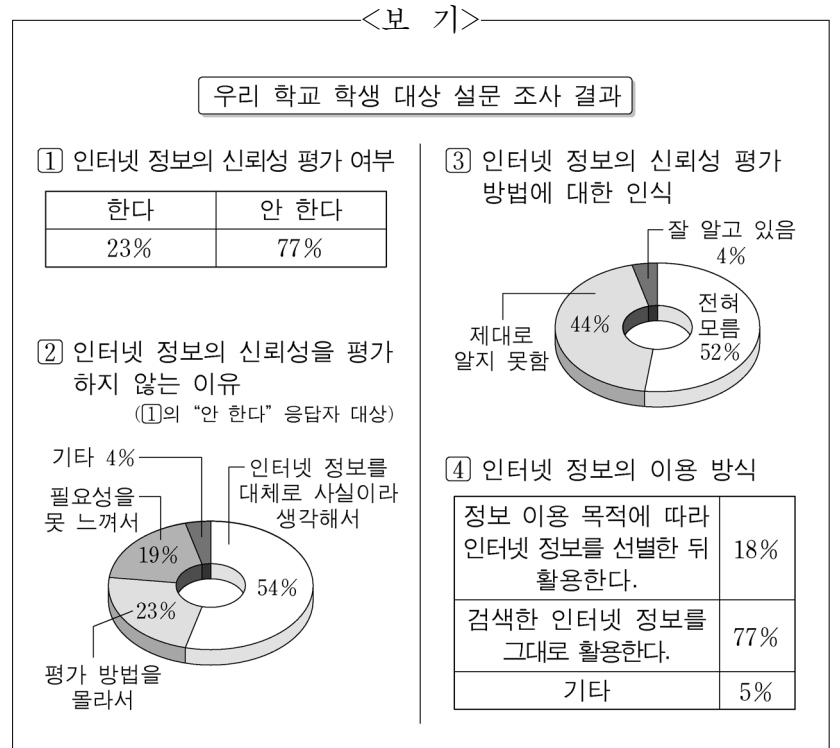
첫째 문항에 대해 우리 학교 학생은 대다수가 ㉣ 인터넷 정보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그 이유를 묻는 둘째 문항에 대해서는 ㉤ '인터넷 정보를 대체로 사실이라 생각'하거나 '평가 방법을 몰라서'라고 응답한 학생이 73%에 달하였다. 이처럼 인터넷 정보의 신뢰성을 평가하지 않는 학생의 비율이 ㉥ 매우 높은 것은 우려할 만하다. 다음으로 인터넷 정보의 신뢰성 평가 방법에 대한 인식을 묻는 셋째 문항에 대해 인터넷 정보 ㉦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는 학생이 ㉧ 드물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사태의 심각성을 시사한다. 특히, 인터넷 정보의 신뢰성을 평가하지 않는 학생들은 신뢰성 평가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를 ㉨ '평가 방법을 몰라서'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 학교 학생의 인터넷 정보 이용 방식을 묻는 넷째 문항에 대해 우리 학교 학생 중의 18%만이 '정보 이용 목적에 따라 인터넷 정보를 선별한 뒤 활용한다'고 응답하였고, ㉩ 나머지는 '그대로 활용한다'고 응답했다.

앞서 제시한 바처럼, 우리 학교 학생 대다수가 인터넷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 수용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많은 청소년들이 인터넷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이용하는 양상이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학교 학생들이 인터넷 정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자신의 이용 목적에 따라 그것을 선별하여 활용하는 태도 형성을 위한 조치가 ㉫ 강구될 필요가 있다.

6. (가)에 따라 글쓴이가 (나)를 썼다고 할 때, (나)에 반영된 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교지의 주요 독자층인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터넷 정보 기술에 관련된 어려운 용어들을 정의해 주었다.
- ② 우리 학교 학생들의 인터넷 정보 이용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구성된 설문 조사 항목을 글의 첫째 단락에서 언급하였다.
- ③ 우리 학교 학생들의 인터넷 정보 이용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나열하였다.
- ④ 우리 학교 학생들의 인터넷 정보 이용 실태를 객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글의 둘째 단락에서 설문 조사 결과와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였다.
- ⑤ 우리 학교 학생들의 무비판적 인터넷 정보 이용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지막 단락에서 대조와 가정의 방식으로 실태 조사 결과를 정리하였다.

7. <보기>는 (나)를 작성할 때 활용한 자료이다. <보기>에 맞추어 [A]를 수정하고자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는 ①의 내용과 어긋나므로 '인터넷 정보의 신뢰성을 평가하지 않는다'로 수정한다.
- ② b는 ②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부정확한 합산 결과를 제시한 것이므로 '73%'를 '77%'로 수정한다.
- ③ c와 d는 ①과 ③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달하지 못하므로 c는 '77%로 매우 높은 것'으로, d는 '4%에 불과할 정도로 그 비율이 매우 낮았다'로 수정한다.
- ④ e는 ②의 내용과 어긋나므로 '필요성을 못 느껴서'로 수정한다.
- ⑤ f는 ④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각각의 항목과 그에 맞는 수치를 제시하는 진술로 수정한다.

8. (나)의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조사의 사용이 부적절하므로 '이용에'로 고친다.
- ② ㉡은 맞춤법에 어긋나므로 '바다이므로'로 고친다.
- ③ ㉢은 어미의 사용이 부적절하므로 '알아보려고'로 고친다.
- ④ ㉣은 사동 표현이 부적절하게 사용되었으므로 '수용하는'으로 고친다.
- ⑤ ㉣은 그 앞에 '태도 형성을'이란 목적어가 있으므로 '강구할'로 고친다.

[9~10] 다음은 작문 과제와 그에 따라 작성한 학생의 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과제]

자신의 평소 생활을 되돌아보고 느낀 점을 글로 써 보자.

[학생의 글]

아침부터 비가 내려 친구와 만나기로 한 약속을 미루었다고 내가 불멘소리를 하니, 옆에 있던 동생이 “저번엔 비가 오는데도 친구 만나러 갔잖아.”라고 한다. 생각해 보니 지난번 비가 오는 날은 그 친구를 만나, 비가 오니 시원하다는 이야기를 나누며 길을 걷기도 하고, 평소 가 보고 싶었던 곳을 돌아다니며 활기찬 하루를 보냈다. 반면 오늘은 같은 상황인데도 활동하기에 불편하다고 불평을 하며 약속을 미루고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내려고 했다. 같은 상황인데도 왜 나의 행동이 다르게 나타났을까?

문득 어떤 책에서 읽은 두 농부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두 농부가 열심히 밭을 일구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졌다. 한 농부는 “비가 오니 오늘은 더 이상 일을 못하겠군.” 하면서 불평을 했고, 다른 농부는 “비가 오니 땅이 부드러워져 일하기가 수월하겠군.” 하며 좋아하더라는 이야기였다. 두 농부는 같은 상황이었지만 서로 다른 하루를 보냈던 것이다.

내 마음에도 긍정의 농부와 부정의 농부가 살고 있다. 내 마음속 부정의 농부가 나타났을 때에는 나에게 의미가 있었을 활동이라도 좀처럼 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긍정의 농부가 나타났을 때에는 평소 하고 싶었으나 머뭇거리던 일들도 의욕적으로 시도하게 되었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게 되었다. 나는 긍정적 마음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활기찬 시간을 보내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했다. 긍정적 마음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농부처럼 내가 내 앞에 놓인 상황을 긍정의 마음으로 바라보고자 노력한다면 내 생활에 생기가 돌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9. 학생의 글에서 글쓴이가 사용한 글쓰기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긍정적 마음이 갖는 사회적 의의를 제시하고 그것의 전통적 의미와 현대적 의미를 대조한다.
- ② 긍정적 마음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긍정적 마음이 갖는 장점을 병렬적으로 나열한다.
- ③ 긍정적 마음과 관련된 개인적 경험을 제시하고 교훈적 성격의 일화를 자신의 깨달음과 연결한다.
- ④ 긍정적 마음이 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례를 제시하고 바람직한 생활 태도를 담은 가족의 조언과 연결한다.
- ⑤ 긍정적 마음이 갖는 실용적 가치를 제시하고 긍정적 마음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나눈다.

10. 학생의 글에 나타난 핵심 내용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긍정의 비가 내려 용서의 꽃을 피우다.
- ② 긍정의 거름을 주어 활력의 나무를 키우다.
- ③ 긍정의 농부와 부정의 농부가 함께 살아가다.
- ④ 긍정의 마음으로 친구와의 우정에 대해 생각하다.
- ⑤ 긍정의 자세는 이웃과 소통하는 삶을 위해 필요하다.

11. <보기>의 ㉠~㉣의 밑줄 친 부분과 동일한 음운 변동이 일어난 예가 모두 바르게 제시된 것은? [3점]

—<보 기>—

국어에는 거센소리되기, 자음군 단순화, 된소리되기, 비음화, 유음화 등의 음운 변동이 있다.

- ㉠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밥하고[바파고] 떡이다.
- ㉡ 옷에 흠까지[혹까지] 묻히고 시내를 쏘다녔다.
- ㉢ 우리는 손을 잡고[잡꼬] 마냥 즐거워하였다.
- ㉣ 그는 고전 음악을 즐겨 듣는다[듣는다].
- ㉤ 칼날[칼달]에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 ① ㉠의 예: 먹히다, 목걸이
- ② ㉡의 예: 값싸다, 닭똥
- ③ ㉢의 예: 굳세다, 숨이불
- ④ ㉣의 예: 겁내다, 맨입
- ⑤ ㉤의 예: 잡히다, 설날

12. 밑줄 친 부분이 <보기>의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 기>

동사의 어간에 연결 어미 ‘-(으)며’가 결합할 때, ㉠ 앞 문장과 뒤 문장의 주어가 서로 같고, ‘-(으)며’를 연결 어미 ‘-(으)면서’로 바꾸어 쓸 수 있는 경우에 ‘-(으)며’는 앞뒤 문장의 동작이 동시에 일어남을 나타낸다.

예) 철수가 음악을 듣는다. + 철수가 커피를 마신다.  
→ 철수가 음악을 들으며(들으면서) 커피를 마신다.

- ① 우리는 함께 걸으며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다.
- ② 모두들 음정에 주의하며 노래를 제대로 부르자.
- ③ 아는 사람 하나가 미소를 지으며 내게 다가왔다.
- ④ 마라톤 선수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결승선을 통과했다.
- ⑤ 출근할 때, 일부는 버스를 이용하며 일부는 지하철을 이용한다.

13. 밑줄 친 부분이 <보기>의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 기>

국어에서는 의존 명사가 수량을 표현하는 말 뒤에 쓰여 수효나 분량 따위의 단위를 나타내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 자립 명사가 단위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사람’은 자립 명사로 쓰이기도 하지만 수량을 표현하는 말 뒤에 쓰여 사람을 세는 단위를 나타낼 수도 있다.

- 의존 명사: 그 아이는 올해 아홉 살이다.
- 자립 명사: 그는 사람을 부리는 재주가 있다.
- 자립 명사가 단위를 나타내는 경우  
: 친구 다섯 사람과 함께 도서관에 갔다.

- ① 이 글에는 여러 군데 잘못이 있다.
- ② 앉은자리에서 밥 두 그릇을 다 먹었다.
- ③ 시장에서 수박 세 덩어리를 사 가지고 왔다.
- ④ 할아버지께서는 밥을 몇 숟가락 겨우 뜨셨다.
- ⑤ 나는 서너 발자국 뒤로 물러서다가 냇다 도망쳤다.

14. <자료>와 같이 문장을 수정할 때 고려한 사항을 <보기>의 ㉠~㉣에서 고른 것은?

<보 기>

- ㉠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 너희가 기억할 것은 좋은 지도자는 실패하더라도 좌절하지 않는다.
  - 너희가 기억할 것은 좋은 지도자는 실패하더라도 좌절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 ㉡ 부사어와 연결 어미의 호응
  - 그는 아무리 돈이 많아서 그것을 쓸 줄 모른다.
  - 그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것을 쓸 줄 모른다.
- ㉢ 목적어의 누락
  - 상대방의 함정에 빠진 그들은 머리를 모아 궁리하기 시작했다.
  - 상대방의 함정에 빠진 그들은 머리를 모아 탈출 방법을 궁리하기 시작했다.
- ㉣ 피동의 중복
  - 그것은 오래전에 불려지던 노래이다.
  - 그것은 오래전에 불리던 노래이다.

<자 료>

- 그 프로그램을 쓰면 비록 초보자일수록 누구나 쉽게 표와 그래프 등을 그려서 작성할 수 있다.
- 그 프로그램을 쓰면 비록 초보자일지라도 누구나 쉽게 표와 그래프 등을 그려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15. 밑줄 친 부분이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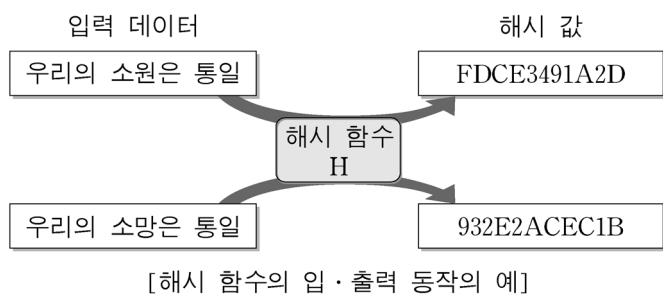
<보 기>

일반적으로 의문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요청하는 문장인데, 화자가 청자에게 행동을 요청할 때 쓰이기도 한다. 청유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함께 행동할 것을 요청하는 문장이다. 그러므로 이 문장 유형들은 ㉠ 화자가 청자에게 요청을 할 때 쓰이는 것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 ① [ A: 괜찮다면, 우리 여기서 잠깐 기다릴래요?  
B: 좋아요. 10분만 더 기다려요.
- ② [ A: 다친 곳은 어떤가? 한번 보세.  
B: 보시다시피 많이 좋아졌습니다.
- ③ [ A: 저기요. 먼저 좀 내립시다.  
B: 아, 예. 저도 여기서 내려요.
- ④ [ A: 저 혹시, 모자를 벗어 주실 수 있을까요?  
B: 제가 방해가 되었군요. 미안합니다.
- ⑤ [ A: 어디 보자. 내가 다 챙겼나?  
B: 거기서 혼자 뭐 해요. 빨리 나와요.

[16~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온라인을 통한 통신, 금융, 상거래 등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지만 보안상의 문제도 안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암호 기술이 동원된다. 예를 들어 전자 화폐의 일종인 비트코인은 해시 함수를 이용하여 화폐 거래의 안전성을 유지한다. 해시 함수란 입력 데이터 x에 대응하는 하나의 결과 값을 일정한 길이의 문자열로 표시하는 수학적 함수이다. 그리고 입력 데이터 x에 대하여 해시 함수 H를 적용한 수식을  $H(x)=k$ 라 할 때, k를 해시 값이라 한다. 이때 해시 값은 입력 데이터의 내용에 미세한 변화만 있어도 크게 달라진다. 현재 여러 해시 함수가 이용되고 있는데, 해시 값을 표시하는 문자열의 길이는 각 해시 함수마다 다를 수 있지만 특정 해시 함수에서의 그 길이는 고정되어 있다.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시 함수는 데이터의 내용이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이용된다. 가령, 상호 간에 동일한 해시 함수를 사용한다고 할 때, 전자 문서와 그 문서의 해시 값을 함께 전송하면 상대방은 수신한 전자 문서에 동일한 해시 함수를 적용하여 결과 값을 얻은 뒤 전송받은 해시 값과 비교함으로써 문서가 변경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해시 함수가 ㉠ 일방향성과 ㉡ 충돌회피성을 만족시키면 암호 기술로도 활용된다. 일방향성이란 주어진 해시 값에 대응하는 입력 데이터의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한다. 특정 해시 값 k가 주어졌을 때  $H(x)=k$ 를 만족시키는 x를 계산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고 충돌회피성이란 특정 해시 값을 갖는 서로 다른 데이터를 찾아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로 다른 데이터 x, y에 대해서  $H(x)$ 와  $H(y)$ 가 각각 도출한 값이 동일하면 이것을 충돌이라 하고, 이때의 x와 y를 충돌쌍이라 한다. 충돌회피성은 이러한 충돌쌍을 찾는 것이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컴퓨터의 계산 능력을 동원하더라도 그것을 완료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해시 함수는 온라인 경매에도 이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 온라인 경매 사이트에서 일방향성과 충돌회피성을 만족시키는 해시 함수 G가 모든 경매 참여자와 운영자에게 공개되어 있다고 하자. 이때 각 입찰 참여자는 자신의 입찰가를 감추기 위해 논스\*의 해시 값과, 입찰가에 논스를 더한 것의 해시 값을 함께 게시판에 게시한다. 해시 값 게시 기한이 지난 후 각 참여자는 본인의 입찰가와 논스를 운영자에게 전송하고 운영자는 최고 입찰가를 제출한 사람을 낙찰자로 선정한다. 이로써 온라인 경매 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보안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논스: 입찰가를 추측할 수 없게 하기 위해 입찰가에 더해지는 임의의 숫자.

16. 윗글의 ‘해시 함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전자 화폐를 사용한 거래의 안전성을 위해 해시 함수가 이용될 수 있다.
- ② 특정한 해시 함수는 하나의 입력 데이터로부터 두 개의 서로 다른 해시 값을 도출하지 않는다.
- ③ 입력 데이터 x를 서로 다른 해시 함수 H와 G에 적용한  $H(x)$ 와  $G(x)$ 가 도출한 해시 값은 언제나 동일하다.
- ④ 입력 데이터 x, y에 대해 특정한 해시 함수 H를 적용한  $H(x)$ 와  $H(y)$ 가 도출한 해시 값의 문자열의 길이는 언제나 동일하다.
- ⑤ 발신자가 자신과 특정 해시 함수를 공유하는 수신자에게 어떤 전자 문서와 그 문서의 해시 값을 전송하면 수신자는 그 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7. 윗글의 ㉠과 ㉡에 대하여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을 지닌 특정 해시 함수를 전자 문서 x, y에 각각 적용하여 도출한 해시 값으로부터 x, y를 복원할 수 없다.
- ② 입력 데이터 x, y에 특정 해시 함수를 적용하여 도출한 문자열의 길이가 같은 것은 해시 함수의 ㉠ 때문이다.
- ③ ㉡을 지닌 특정 해시 함수를 전자 문서 x, y에 각각 적용하여 도출한 해시 값의 문자열의 길이는 서로 다르다.
- ④ 입력 데이터 x, y에 특정 해시 함수를 적용하여 도출한 해시 값이 같은 것은 해시 함수의 ㉡ 때문이다.
- ⑤ 입력 데이터 x, y에 대해 ㉠과 ㉡을 지닌 서로 다른 해시 함수를 적용하였을 때 도출한 결과 값이 같으면 이를 충돌이라고 한다.

18. [가]에 따라 <보기>의 사례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온라인 미술품 경매 사이트에 회화 작품 △△이 출품되어 A와 B만이 경매에 참여하였다. A, B의 입찰가와 해시 값은 다음과 같다. 단, 입찰 참여자는 논스를 임의로 선택한다.			
입찰 참여자	입찰가	논스의 해시 값	‘입찰가+논스’의 해시 값
A	a	r	m
B	b	s	n

- ① A는 a, r, m 모두를 게시 기한 내에 운영자에게 전송해야 한다.
- ② 운영자는 해시 값을 게시하는 기한이 마감되기 전에 최고가 입찰자를 알 수 없다.
- ③ m과 n이 같으면 r과 s가 다르더라도 A와 B의 입찰가가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④ A와 B 가운데 누가 높은 가격으로 입찰하였는지는 r과 s를 비교하여 정할 수 있다.
- ⑤ B가 게시판의 m과 r을 통해 A의 입찰가 a를 알아낼 수도 있으므로 게시판은 비공개로 운영되어야 한다.

[19~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견과류와 같이 지방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식품을 장기간 저장하다 보면 불쾌한 냄새가 나기도 한다. 이는 대개 산패로 인해 발생한다. 산패는 저장 중인 식품에서 비정상적인 맛과 냄새가 나는 현상을 말한다. 지방질이 공기에 장시간 노출되어 열, 빛 등의 영향을 받으면 산화 작용이 ㉠ 일어나 산패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산패는 지방질을 구성하는 성분의 구조와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지방질은 사슬 모양을 ㉡ 이루고 있으며 지방질 한 분자에는 글리세롤 한 분자와 지방산 세 분자가 결합되어 있다. 지방산은 탄소끼리의 결합을 중심으로 탄소와 수소, 탄소와 산소의 결합을 포함한 사슬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글리세롤과 결합된 탄소를 제외한 모든 탄소는 수소와 결합되어 있다. 지방산에서 탄소끼리의 결합은 대부분 단일결합인데 이중결합인 경우도 있다. 이중결합이 없으면 포화 지방산, 한 개 이상의 이중결합이 있으면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한다. 오메가-3 지방산이나 오메가-6 지방산은 대표적인 불포화 지방산이다. 산화 작용에 의한 산패는 불포화 지방산이 결합된 지방질에서 일어나며, 이중결합의 수가 많을수록 잘 일어난다. 글리세롤은 지방질의 산패에 큰 영향을 ㉢ 주지 않는다.

예를 들어 글리세롤에 오메가-6 지방산만이 결합되어 있는 ㉣ A 지방질이 있다고 하자. A 지방질의 오메가-6 지방산 사슬에 있는 탄소에서 산화 작용이 일어나 산패에 이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라디칼 분자들이다. 대부분의 분자들은 짝수의 전자를 가지는데, 외부 에너지의 영향으로 홀수의 전자를 갖는 분자로 변화되기도 한다. 이 변화된 분자를 라디칼 분자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라디칼 분자는 에너지가 높고 불안정하여 주위 분자들과 쉽게 반응하는데, 이러한 반응 과정을 거치면 에너지가 낮고 안정적인 비(非)라디칼 분자로 변화한다.

A 지방질의 이중결합 바로 옆에 있는 탄소가 열이나 빛의 영향을 ㉤ 받으면, A 지방질 분자가 에너지가 높고 불안정한 알릴 라디칼로 변화한다. 알릴 라디칼은 산소와 결합하여 퍼옥시 라디칼로 변화한다. 퍼옥시 라디칼은 주위에 있는 다른 오메가-6 지방산 사슬과 반응하여 새로운 알릴 라디칼을 만들고, 자신은 비(非)라디칼 분자인 하이드로퍼옥사이드로 변화한다. 새로 생성된 알릴 라디칼은 다시 산소와 결합하여 퍼옥시 라디칼이 되면서 위의 연쇄 반응이 반복된다. 이로 인해 하이드로퍼옥사이드가 계속 생성되고, 생성된 하이드로퍼옥사이드는 분해되어 알코올, 알데히드 등의 화합물로 변화한다. 이 화합물들이 비정상적인 냄새를 나게 하는 주원인이다.

A 지방질에서 산패가 발생하는 것을 지연시키는 방법에는 산화방지제를 첨가하는 것이 있다. 산화방지제는 라디칼 분자에 전자를 주어 짝수 전자를 갖게 하여 다른 분자들과 쉽게 반응하지 않도록 한다. 예를 들어 식물에 ㉥ 들어 있는 천연 산화방지제인 비타민 E는 퍼옥시 라디칼을 안정화시켜 오메가-6 지방산 사슬이 알릴 라디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방해한다. 이 밖에도 산패로 진행되는 데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작용을 억제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19.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오메가-3 지방산에는 이중결합 구조가 없다.
- ② 지방산에서 글리세롤과 결합된 탄소는 수소와 결합되어 있다.
- ③ 포화 지방산 사슬에 이중결합의 수가 많을수록 산패가 더 잘 일어난다.
- ④ 불포화 지방산 사슬에 있는 탄소에서 일어난 산화 작용이 산패로 이어진다.
- ⑤ 지방질은 지방산 한 분자에 글리세롤 세 분자가 결합되어 있는 구조를 갖는다.

20. ㉣이 산패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 지방질 분자가 홀수의 전자를 갖는 라디칼로 변화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 ② A 지방질에서 알코올은 하이드로퍼옥사이드의 분해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다.
- ③ A 지방질에서 변화한 알릴 라디칼은 A 지방질 분자보다 에너지가 낮아서 산소와 쉽게 결합한다.
- ④ A 지방질에서 하이드로퍼옥사이드가 분해되어 생성된 알데히드는 비정상적인 냄새를 나게 한다.
- ⑤ A 지방질에서 생성된 퍼옥시 라디칼은 새로운 알릴 라디칼을 만들고 하이드로퍼옥사이드가 된다.

21. 윗글의 ㉠~㉥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지 않은 것은?

- ① ㉠: 지진이 일어나 피해를 주었다.
- ② ㉡: 유리창에 빗방울이 무늬를 이루고 있다.
- ③ ㉢: 태풍은 우리나라에 피해를 주지 않았다.
- ④ ㉤: 차가 난간을 받으면 안 되니까 조심해라.
- ⑤ ㉥: 이 물질에는 염화마그네슘이 많이 들어 있다.

[22~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소비자의 권익을 위하여 국가가 집행하는 정책으로 경쟁 정책과 소비자 정책을 들 수 있다. 경쟁 정책은 본래 독점이나 담합 등과 같은 반경쟁적 행위를 국가가 규제함으로써 시장에서 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러한 경쟁 정책은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므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유효한 정책으로 인정된다. 경쟁 정책이 소비자 권익에 ㉠ 기여하는 모습은 생산적 효율과 배분적 효율의 두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생산적 효율은 주어진 자원으로 낭비 없이 더 많은 생산을 하는 것으로서, 같은 비용이면 더 많이 생산할수록, 같은 생산량이면 비용이 적을수록 생산적 효율이 높아진다. 시장이 경쟁적이면 개별 기업은 생존을 위해 비용 절감과 같은 생산적 효율을 추구하게 되고, 거기서 창출된 ㉡ 여력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고자 품질을 향상시키거나 가격을 ㉢ 인하하는 데 활용될 것이다. 그리하여 경쟁 정책이 유발한 생산적 효율은 소비자 권익에 기여하게 된다. 물론 비용 절감의 측면에서는 독점 기업이 더 성과를 낼 수도 있겠지만, 꼭 이것이 가격 인화와 같은 소비자의 이익으로 이어지는 않는다. 따라서 독점에 대한 감시와 규제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다음으로, 배분적 효율은 사람들의 만족이 더 커지도록 자원이 배분되는 것을 말한다. 시장이 독점 상태에 놓이면 영리 극대화를 추구하는 독점 기업은 생산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가격을 올림으로써 배분적 비효율을 발생시킬 수 있다. 반면에 경쟁이 활발해지면 생산량 증가와 가격 인하가 수반되어 소비자의 만족이 더 커지는 배분적 효율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경쟁 정책이 시장의 경쟁을 통하여 유발한 배분적 효율도 소비자의 권익에 기여하게 된다.

경쟁 정책은 이처럼 소비자 권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이것만으로 소비자 권익이 충분히 실현되지는 않는다. 시장을 아무리 경쟁 상태로 유지하더라도 여전히 ㉣ 남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전체 소비자를 기준으로 볼 때 경쟁 정책이 소비자 이익을 ㉤ 증진하더라도, 일부 소비자에게는 불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경쟁 때문에 시장에서 ㉥ 퇴출된 기업의 제품은 사후 관리가 되지 않아 일부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경쟁 정책 자체를 포기하면 전체 소비자에게 ㉦ 불리한 결과가 되므로, 국가는 경쟁 정책을 ㉧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소비자는 기업에 대한 교섭력이 약하고, 상품에 대한 정보도 적으며, 충동구매나 유해 상품에도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품의 원산지 공개나 유해 상품 회수 등의 조치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경쟁 정책에서 직접 다루는 사안이 아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소비자의 지위를 기업과 대등하게 하고 기업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구제하여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별도의 정책이 요구되었고, 이 ㉨ 요구에 따라 수립된 것이 소비자 정책이다. 소비자 정책은 주로 기업들이 지켜야 할 소비자 안전 기준의 마련, 상품 정보 공개의 의무화 등의 ㉩ 조치

와 같이 소비자 보호와 직접 관련 있는 사안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충동구매나 유해 상품 구매 등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고,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며, 기업과 소비자 간의 분쟁을 직접 해결해 준다는 점에서도 경쟁 정책이 갖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22. 윗글의 설명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소비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 ② 소비자 정책의 문제점을 사례 제시를 통해 부각하고 있다.
- ③ 소비자와 기업의 관계를 유사한 사례에 빗대어 기술하고 있다.
- ④ 소비자 권익 실현을 위한 두 정책에 대해 소개하면서 각각의 기능을 밝히고 있다.
- ⑤ 시장의 경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을 역사적 측면에서 고찰하고 있다.

23.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독점에 대한 규제는 배분적 효율에 기여할 수 있다.
- ② 시장이 경쟁적이라도 일부 소비자에게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 ③ 생산적 효율을 달성한 독점 기업은 경쟁 정책으로 규제할 필요가 없다.
- ④ 기업이 지켜야 할 소비자 안전 기준을 마련하는 조치는 소비자 권익에 도움이 된다.
- ⑤ 소비자의 지위가 기업과 대등하지 못하다는 점은 소비자 정책이 필요한 이유가 된다.

24.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생산적 효율을 통해 절감된 만큼의 비용에서 발생한다.
- ② ㉡에는 유해 상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경쟁 정책이 직접 해결해 주기 어렵다는 문제가 포함된다.
- ③ ㉢은 시장에서 경쟁 상태가 유지되지 않아서 전체 소비자의 기준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말한다.
- ④ ㉣은 경쟁 정책 이외에 소비자 권익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라는 요구이다.
- ⑤ ㉤은 경쟁 정책에서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구체적인 수단이다.



25. <보기>의 사례들 중 소비자 정책에 해당하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먹거리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자 정부는 모든 음식점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의무를 강화하였다.

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 판매의 피해가 자주 발생하자 정부는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ㄷ. 온라인 게임 업체와 회원 간의 분쟁이 늘어나자 관계 당국은 산하 기관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였다.

ㄹ. 시내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동시에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되자 관계 당국이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6.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이바지하는                      ② ㉡: 내리는  
 ③ ㉢: 늘리더라도                      ④ ㉣: 밀려난  
 ⑤ ㉤: 세울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진은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근대 문명이 만들어 낸 기술적 도구이자 현실 재현의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점차 여러 사진작가들이 사진을 연출된 형태로 찍거나 제작함으로써 자기의 주관을 표현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였다. 이들은 빛의 처리, 원판의 합성 등의 기법으로 회화적 표현을 모방하여 예술성 있는 사진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만들어진 사진 작품들을 회화주의 사진이라고 부른다.

스타이컨의 ㉠ <빅토르 위고와 생각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로댕>(1902년)은 회화주의 사진을 대표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작품에서 피사체들은 조각가 ‘로댕’과 그의 작품인 <빅토르 위고>와 <생각하는 사람>이다. 스타이컨은 로댕을 대리석상 <빅토르 위고> 앞에 두고 찍은 사진과, 청동상 <생각하는 사람>을 찍은 사진을 합성하여 하나의 사진 작품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제작된 사진의 구도에서 어둡게 나타난 근경에는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과 서로 마주 보며 비슷한 자세로 앉아 있고, 반면 환하게 보이는 원경에는 <빅토르 위고>가 이들을 내려다보는 모습으로 배치되어 있다. 단순히 근경과 원경을 합성한 것이 아니라, 두 사진의 피사체들이 작가가 의도한 바에 따라 하나의 프레임 속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당시로서는 고난도인 합성 사진 기법을 동원한 것이다. 또한 인화 과정에서는 피사체의 질감이 억제되는 감광액을 사용하였다.

스타이컨은 1901년부터 거의 매주 로댕과 예술적 교류를 하며 그의 작품들을 촬영했다. 로댕은 사물의 외형만을 재현하려는 당시 예술계의 경향에서 벗어나 생명력과 표현성을 강조하

는 조각을 하고 있었는데, 스타이컨은 이를 높이 평가하고 깊이 공감하였다. 스타이컨은 사진이나 조각이 작가의 주관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으며 문학 작품처럼 해석의 대상도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로댕 또한 이에 동감하여 기꺼이 사진 작품의 모델이 되어 주기도 하였다.

이 사진에서는 피사체들의 질감이 뚜렷이 ㉡ 살지 않게 처리하여 모든 피사체들이 사람인 듯한 느낌을 주고자 하였다. 대문호 <빅토르 위고>가 내려다보고 있는 가운데 로댕은 <생각하는 사람>과 마주하여 자신도 <생각하는 사람>이 된 양, 같은 자세로 묵상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 원경에서 희고 밝게 빛나는 <빅토르 위고>는 근경에 있는 로댕과 <생각하는 사람>의 어두운 모습에 대비되어 창조의 영감을 발산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구도는 로댕의 작품도 문학 작품과 마찬가지로 창작의 고뇌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

이처럼 스타이컨은 명암 대비가 뚜렷이 드러나도록 촬영하고, 원판을 합성하여 구도를 만들고, 특수한 감광액으로 질감에 변화를 주는 등의 방식으로 사진이 회화와 같은 방식으로 창작되고 표현될 수 있는 예술임을 보여 주고자 하였다.

27.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로댕은 사진 작품, 조각 작품, 문학 작품 모두 해석의 대상이 된다고 여겼다.  
 ② 빅토르 위고는 사진과 조각을 모두 해석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여 그것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③ 스타이컨의 사진은 대상을 그대로 보여 준다는 점에서 회화주의 사진의 대표적 작품으로 평가된다.  
 ④ 로댕과 스타이컨은 조각의 역할이 사물의 형상을 충실히 재현하는 것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⑤ 스타이컨의 작품에서 명암 효과는 합성 사진 기법으로 구현되었고 질감 변화는 피사체의 대립적인 구도로 실현되었다.

28. ㉠과 관련하여 추론할 수 있는 스타이컨의 의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고난도의 합성 사진 기법을 쓴 것은 촬영한 대상들을 하나의 프레임에 담기 위해서였다.  
 ② 원경이 밝게 보이도록 한 것은 <빅토르 위고>와 로댕 간의 명암 대비 효과를 내기 위해서였다.  
 ③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과 마주 보며 같은 자세로 있게 한 것은 고뇌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서였다.  
 ④ 원경의 대상을 따로 촬영한 것은 인물과 청동상을 함께 찍은 근경의 사진과 합칠 때 대비 효과를 얻기 위해서였다.  
 ⑤ 대상들의 질감이 잘 살지 않도록 인화한 것은 대리석상과 청동상이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였다.

29. 다음은 학생이 쓴 감상문의 일부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습활동** 스타이컨의 작품을 감상하고 글을 써 보자.

예전에 나는, 사진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사진이 예술 작품이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스타이컨의 <빅토르 위고와 생각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로댕>을 보고, ㉠ 사진도 예술 작품으로서 작가의 생각을 표현하는 창작 활동이라는 스타이컨의 생각에 동감하게 되었다. 특히 ㉡ 회화적 표현을 사진에서 실현시키려 했던 스타이컨의 노력은 그 예술사적 가치를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없지 않다. 당시의 상황에서는 ㉢ 스타이컨이 빅토르 위고와 같은 위대한 문학가를 창작의 영감을 주는 존재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래도 ㉣ 스타이컨이 로댕의 조각 예술이 문학에 종속되는 것으로 표현할 것까지는 없었다고 생각한다. 그렇더라도 ㉤ 기술적 도구로 여겨졌던 사진을 예술 행위의 수단으로 활용한 스타이컨의 창작열은 참으로 본받을 만하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30.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이 소설가는 개성이 살아 있는 문체로 유명하다.
- ② 아궁이에 불씨가 살아 있으니 장작을 더 넣어라.
- ③ 어제까지도 살아 있던 손목시계가 그만 멈춰 버렸다.
- ④ 흰긴수염고래는 지구에 살고 있는 동물 중 가장 크다.
- ⑤ 부부가 행복하게 살려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혈룡이 어이가 없어서,  
 “오냐, 내가 너를 친구라고 찾아왔다가 통지를 할 수 없어 한 달이나 지나서 노자도 떨어지고 기갈을 견디지 못하여 문전걸식하고 다니다가 오늘에야 이 자리에서 너를 보니 죽어도 한이 없다. 나는 너를 친구라고 찾아왔는데 어찌 이같이 괘시한단 말이나? ㉠ 오랜 친구도 쓸데없고 결의형제도 쓸데없구나. 내가 네 처지라면 이같이는 괘시하지 않을 거다. 다만 돈백이라도 준다면 모친과 처자를 먹여 살리겠다.”  
 하면서 대성통곡하였다. 이혈룡은 다시 울먹이는 말로,  
 “이 몸쓸 김진희야, 내가 지금 푼전의 노자가 없으니 멀고 먼 서울 길을 어찌 돌아가랴.”  
 하니, 김 감사는 노발대발,  
 “이 미친놈 봤나.”  
 호통을 치면서 사공을 불러 엄명하였다.  
 “이놈을 배에 싣고 가서 강물 한가운데 던져라.”  
 이에 사공들이 영을 받고 물러 나와 이혈룡을 묶어서 배에 실을 때에 연회장에 있던 옥단춘이 던지지 보니, 비록 의복은 남루하나 얼굴이 비범한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감사에게 거짓말하여 고하기를,  
 “소녀 지금 오한이 일어나며 온몸이 괴로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니 감사가,  
 “그러면 물러가서 치료하라.”  
 하였다. 옥단춘이 물러 나와서 사공을 급히 불렀다.  
 “저기 가는 저 사공들, 잠깐 기다리시오.”  
 하니 사공들이 머무르거늘 옥단춘이 하는 말이,  
 “내 이 양반의 몸값을 후하게 줄 것이니 이 양반을 죽이지 말고 죽인 듯이 모래를 덮어서 숨겨 두고 오시오.”  
 하였다.  
 옥단춘의 부탁을 받은 사공들이,  
 ㉡ “아무리 사또 영이 지중하지만 어찌 우리 손으로 죄 없는 사람을 죽이겠는가.”  
 하고 사공들이 이혈룡을 배에 싣고 만경창과 깊은 물에 동기둥실 떠나갔다. 혈룡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속절없이 죽는 줄로만 알고 하늘을 우러러 방성통곡하였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이혈룡은 옥단춘의 기지로 목숨을 구한 후 그녀의 집에 머물게 된다. 이후 이혈룡은 과거 시험을 치르라는 옥단춘의 권유로 서울로 돌아와 가족을 만나고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한다.  
 그러자 모친과 부인은 그 사실을 듣고 혈룡의 죽을 고생을 생각하고 서로 슬픈 눈물을 흘렸다. 동시에 옥단춘이 혈룡을 구제한 전후 사실을 듣고, 그 은혜를 서로 치사하여 마지않았다. 오래간만에 만난 가족들은 그동안의 회포를 서로 다 이야기하여 풀고 다시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 ㉢ 모친도 죽었던 자식 다시 본 듯, 부인도 잃었던 낭군 다시 본 듯 잠시도 서로 떠날 마음이 없이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  
 이때에 과거 날이 되었으므로 혈룡이 모친의 슬하를 떠나서

대궐 안 과거장에 들어가니 팔도에서 글 잘한다는 선비들이 구름같이 모여 있었다.

이윽고 글제를 살펴보니 ㉠ 천하태평춘(天下泰平春)이라 걸려 있었다. ㉡ 글을 지을 생각을 가다듬은 후에 용벼루에 먹을 갈아 조맹부의 필체로 단숨에 일필휘지하여 바쳤는데, 전하께서 보시고는 글자마다 비점(批點)이요 글귀마다 관주(貫珠)를 치는 것이었다.

전하께서 칭찬하시는 말씀이,  
“참으로 신묘하다. 이 글씨와 글 지은 사람은 범상치 않은 사람이다.”

하시고, 알성시(謁聖試) ㉢ 장원급제(狀元及第)로 한림학사를 제수하시고, 곧 어전입시(御前入侍)하라는 분부를 내리셨다. 이한림이 입시하여 천은을 사례하자 전하께서 칭찬하시기를,

“충신의 자식은 충신이요, 소인의 자식은 소인이다. 용모를 살펴보니 용안호두(龍顔虎頭)요, 목목지인(穆穆之人)이로다.”

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다.

이한림은 어전에 엎드려,

㉣ “소신과 같이 무재무능한 자를 이처럼 충신지자충신(忠臣之子忠臣)이라 하시오니 황공무지하오며, 또한 한림을 제수 하시니 더욱 황공하옵니다.”

하고, 수없이 치사하고 물러 나와 집에 큰 잔치를 베풀고 향당과 친지를 청하여 경사를 축하하였다. 그리고 한편으로,

‘평양 감사 김진희의 불의무도한 소행을 나만 당하였으랴. 무고한 백성들은 무슨 죄로 한 사람의 ㉤ 학정(學政)으로 평양 일도에서 어육(魚肉)이 된다는 말인가. 곰곰 생각하니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마땅히 성상께 여쭙지 않을 수 없다.’

생각하고, 전후 사실을 일일이 밀록(密錄)하여 전하께 바쳤다. 전하께서는 그 ㉤ 밀록을 받아 보시고 수없이 탄식한 뒤에

㉥ 봉서(封書) 삼장을 내리셨다. 또 친히 하교하시기를,

“첫 봉서는 새문 밖에 가서 뜯어보고, 둘째 봉서는 평양에 가서 뜯어보고, 셋째 봉서는 그 후에 뜯어보라.”

하시고, 조심하여 다녀오라 하셨다. 이한림이 사은숙배하고 바로 나와서 모친과 부인에게 하직하였다. 새문 밖에 나가서 첫째 봉서를 뜯어보니, ‘평안도 암행어사 이혈룡’이라는 사령장과 마패가 들어 있었다.

- 작자 미상, 「옥단춘전」 -

31. 윗글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반박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배신감을 드러내고, 역지사지를 가정하여 상대방을 질책하고 있다.
- ② ㉡: 옥단춘의 회유로 ‘사또 영’을 따르지 않기로 한 사공들의 생각이 설의적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다.
- ③ ㉢: 이혈룡과 재회한 기쁨을 모친과 부인 각자의 입장에 어울리는 비유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 ④ ㉣: 이혈룡의 글 짓는 과정을 행동의 순차적 나열로 보여 주고, 타인의 평가를 통해 이혈룡의 재능이 확인되고 있다.
- ⑤ ㉤: 이혈룡은 검양의 어조를 통해 상대방이 내린 지위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드러내고 있다.

32. 윗글의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이혈룡은 ㉠라는 과제에 탁월한 답안을 제출하여 임금으로부터 ㉡에 합당한 인재로 인정받았다.
- ② ㉢는 이혈룡이 공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음을 뜻하고, 임금에게 ㉣를 올릴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한다.
- ③ ㉣는 이혈룡이 평양에서 겪었던 일을 방어적으로 표현하며 ㉠가 구현되는 것을 방해한다.
- ④ ㉤는 ㉢를 계기로 작성되었으며 현재 ㉠가 완전하게 실현되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 ⑤ ㉥는 임금이 이혈룡에게 ㉢를 바로잡는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3. <보기>를 참조하여 윗글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옥단춘전」에서 옥단춘은 인물의 비범함을 알아보는 지인지감(知人之鑑)의 소유자이자 기지를 발휘하여 위기에 빠진 인물을 구해 내는 적극적인 조력자로 그려진다. 그녀는 자신의 조력을 통해 대상 인물의 사회적 지위를 상승시키고, 애정의 대상을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인물이다.

- ① 옥단춘이 오한을 핑계로 김 감사의 허락을 받은 후 연회장을 빠져나온 것에서 그녀의 기지를 엿볼 수 있군.
- ② 옥단춘이 이혈룡을 구해 줄 수 있는 인물로 김 감사를 선택한 것에서 여성으로서의 주체적 판단이 작용했음을 알 수 있군.
- ③ 옥단춘이 김 감사에게 팔시받던 남루한 행색의 이혈룡이 비범한 인물임을 발견한 데서 그녀의 지인지감을 엿볼 수 있군.
- ④ 가족들이 어려움에 처했던 이혈룡을 구해 준 옥단춘의 은혜에 감사한 것에서 조력자인 옥단춘의 역할을 인정한 것임을 알 수 있군.
- ⑤ 옥단춘이 사공들에게 이혈룡의 몸값을 후하게 제시하고 구체적 방안을 알려 준 것에서 그녀의 적극적인 조력 의지를 엿볼 수 있군.

[34~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태양을 의논하는 거룩한 이야기는  
㉠ 항상 태양을 등진 곳에서만 비롯하였다.

달빛이 흡사 비 오듯 쏟아지는 밤에도  
우리는 헐어진 성터를 헤매이면서  
언제 참으로 그 언제 우리 하늘에  
오롯한 태양을 모시겠느냐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이야기하며 이야기하며  
가슴을 쥐어뜯지 않았느냐?

그러는 동안에 영영 잃어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멀리 떠나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몸을 팔아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맘을 팔아버린 벗도 있다.

㉡ 그러는 동안에 드디어 서른여섯 해가 지나갔다.

다시 우러러보는 이 하늘에  
㉢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거니  
오는 봄엔 분수처럼 쏟아지는 태양을 안고  
그 어느 언덕 꽃덤불에 아늑히 안겨 보리라.

- 신석정, 「꽃덤불」 -

(나)

㉣ 사랑한다는 것은

열매가 맺지 않는 과목은 뿌리째 뽑고  
그 뿌리를 썩힌 흙 속의 해충은 모조리 잡고  
그리고 새 묘목을 심기 위해서  
깊이 파헤쳐 내 두 손의 땀을 섞은 흙  
그 흙을 깨끗하게 실하게 하는 일이다.

그리고

㉤ 아무리 모진 비바람이 삼킨 어둠이어도  
바위 속보다도 어두운 밤이어도  
그 어둠 그 밤을 새워서 지키는 일이다.  
흰한 새벽 햇살이 퍼질 때까지  
그 햇살을 뚫고 마침내 새 과목이  
샘물 같은 그런 빛 뿌리면서 솟을 때까지  
지키는 일이다. 지켜보는 일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 전봉건, 「사랑」 -

(다)

1

㉦ 보리. 너는 차가운 땅속에서 온 겨울을 자라 왔다. 이미 한 해도 저물어, 벼도 아무런 곡식도 남김없이 다 거두어들인 뒤에, 해도 짧은 늦은 가을날, 농부는 밭을 갈고 논을 잘 손질 하여서, 너를 차디찬 땅속에다 깊이 묻어 놓았었다. 차가움에 응결된 흙덩이들을 호미와 고무래로 날날이 부숴 가며, 농부는 너를 추위에 얼지 않도록 주의해서 굳고 차가운 땅속에 깊이 심어 놓았었다. “씨도 제 키의 열 길이 넘도록 심어지면, 움이 나오기 힘이 든다.”는 옛 가르침을 잊지 않으며, 농부는 너를 정성껏 땅속에 묻어 놓고, 이에 늦은 가을의 짧은 해도 서산을 넘은 지 오래고, 날개를 자주 저어 까마귀들이 깃을 찾아간 지 도 오랜, 어두운 들길을 걸어서 농부는 희망의 봄을 머릿속에 간직하며, 굳어진 허리도 잊으면서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2

물도 흐르지 않고, 다 말라 버린 갯강변 발둑 위에는 앙상한 가지덤불 밑에 늦게 핀 들국화들이 찬 서리를 맞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논둑 위에 깔렸던 잔디들도 푸른빛을 잃어버리고, 그 맑고 높던 하늘도 검푸른 구름을 지니어 찌푸리고 있는데, 너, 보리만은 차가운 대기 속에서 솔잎과 같은 새파란 머리를 들고, 하늘을 향하여 솟아오르고만 있었다. 이제, 모든 화초는 지심(地心) 속에 따스함을 찾아서 다 잠자고 있을 때, 너, 보리만은 억센 팔들을 내뻗치고, 셋말간 얼굴로 생명의 보금자리를 깊이 뿌리박고 자라 왔다. 날이 갈수록 해는 빛을 잃고 따스함을 잃었어도 너는 꿈쩍도 아니하고 그 푸른 얼굴을 잃지 않고 자라 왔다. 칼날같이 매서운 바람이 너의 등을 밀고, 얼음 같이 차디찬 눈이 너의 온몸을 덮어 억눌러도, 너는 너의 푸른 생명을 잃지 않았었다. 지금, 어둡고 차디찬 눈 밑에서도, 너, 보리는 장미꽃 향내를 풍겨 오는 그윽한 유월의 훈풍과 노고지리 우짖는 새파란 하늘과, 산 밑을 환히 비추어 주는 태양을 꿈꾸면서, 오로지 기다림과 희망 속에서 아무 말이 없이 참고 견디어 왔으며, 삼월의 맑은 하늘 아래서 아직도 쌀쌀한 바람에 자라고 있었다.

3

춥고 어두운 겨울이 오랜 것은 아니었다. 어느덧 남향 언덕 위에 누렁던 잔디가 파아란 속잎을 날리고, 들판마다 민들레가 웃음을 웃을 때면, 너, 보리는 논과 밭과 산등성이에까지, ㉧ 이미 푸른 바다의 물결로써 온 누리를 뒤덮는다. 낮은 논에도, 높은 밭에도, 산등성이 위에도 보리다. 푸른 보리다. 푸른 봄이다. 아지랑이를 몰고 가는 봄바람과 함께 온 누리는 푸른 봄의 물결을 이고, 들에도, 언덕 위에도, 산등성이 위에도, 봄의 춤이 벌어진다. 푸르른 생명의 춤, 셋말간 봄의 춤이 흘러넘친다. 이윽고 봄은 너의 얼굴에서, 또한 너의 춤 속에서 노래하고 또한 자라난다. 아침 이슬을 머금고, 너의 푸른 얼굴들이 새날과 함께 빛날 때에는, 노고지리들이 쌍쌍이 짝을 지어 너의 머리 위에서 봄의 노래를 자지러지게 불러 대고, 또한 너의 깊고 아늑한 품속에 깃을 들이고, 사랑의 보금자리를 틀어 놓는다.

- 한후구, 「보리」 -

34.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간의 대조를 통해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색채어를 통해 새롭게 나타난 것들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역설적 표현을 활용하여 지향하는 세계에 대한 강력한 열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자연물을 소재로 하여 서로 대립하던 것들이 타협에 이르는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시련과 고난을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하여 기대가 실현되기 이전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35. ㉠~㉥에 나타난, 말하는 이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일상을 권태롭게 여기는 태도가 '항상'을 통해 부각되고 있다.
- ② ㉡: 불행했던 시절이 되돌아올 것에 대비하려는 태도가 '드디어'를 통해 부각되고 있다.
- ③ ㉢: 부정적 상황이 온전히 극복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태도가 '아직도'를 통해 부각되고 있다.
- ④ ㉣: 적대적인 것들로 인해 당황하는 태도가 '아무리'를 통해 부각되고 있다.
- ⑤ ㉤: 예상과는 다른 결과를 실망스럽게 여기는 태도가 '이미'를 통해 부각되고 있다.

36.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사랑이 이루어진 상황을 사랑의 결실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랑을 이루기 위해 지극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랑하기로 마음먹는 것만으로 사랑의 결실을 얻을 수는 없다. 사랑하는 대상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쏟아야 하고, 그 대상을 빼앗으려 하거나 위협하는 것들에 맞서야 한다. 이는 연인은 물론 다른 대상을 향한 사랑에서도 마찬가지이다.

- ① (가)에서 '헐어진 성터'를 해매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 ② (가)에서 '뭍'과 '땀'을 팔아버린 벼들의 삶은 사랑하는 대상을 되찾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의미한다.
- ③ (나)에서 '흙 속의 해충'을 제거하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을 위협하는 것들에 맞서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 ④ (나)에서 '땀'을 새우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관심을 지속하고 위협적인 상황으로부터 그 대상을 지키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 ⑤ (가)의 '어느 언덕 꽃땀'에 안기는 것과 (나)의 '새 과목'이 솟는 것은 노력을 통해 얻으려 하는 사랑의 결실을 의미한다.

37.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시상 전개의 단서로서 마지막 연과 대응되어 작품의 주제를 강조한다.
- ② ㉡는 글의 첫머리에 제시되어, 이어질 내용이 자연 친화적 이념의 역사를 포함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 ③ ㉠은 사물에 비유됨으로써 경외감을, ㉡는 다른 대상과 비교됨으로써 비장감을 자아낸다.
- ④ ㉠은 시행 하나로 연이 구성되어, ㉡는 낱말 하나로 문장이 구성되어 이후 드러날 인간 소외의 양상을 압축적으로 제시한다.
- ⑤ ㉠, ㉡는 모두 존재의 생성에서 소멸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한 출발점이 된다.

38. <보기>를 참고할 때 (다)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보리」에서 글쓴이는 파종된 보리가 자라는 과정을 인간의 삶에 접목하여 그 인격적 속성을 제시함으로써 보리의 모습에서 알 수 있는 다양한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 ① '차가운 땅속'에서 추위를 견디는 보리의 모습을 통해, 어려운 상황을 견디는 인내심을 드러내고 있군.
- ②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는 보리의 모습을 통해, 강인한 의지와 진취적 자세를 드러내고 있군.
- ③ '생명의 보금자리'를 깊이 뿌리박고 자라나는 보리의 모습을 통해, 끈질긴 생명력을 드러내고 있군.
- ④ '봄의 춤'으로 표현된 보리의 모습을 통해, 성숙해질수록 겸손함을 잃지 않는 자세를 드러내고 있군.
- ⑤ 노고지리에게 '깊고 아늑한 품속'을 내어 주는 보리의 모습을 통해, 포용과 배려로 주위와 조화를 이루려는 자세를 드러내고 있군.

[39~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해방 후 ‘나’는 벗인 ‘방(方)’과 함께, 장춘에서 서울에 이르는 귀로에 오른다. 회령에서 우연히 ‘방’과 헤어진 ‘나’는 수성에 이르러 뱀장어를 잡아 파는 한 소년을 만난다. 이후 ‘나’는 ‘방’과 재회하기 위해 청진에 도착하여 어느 국밥집 할머니를 만나게 된다.

노인은 대 끝으로 국 솥을 가리키며,

“이런 걸 하던 것도 아니요, 어려서부터 배운 것도 아니지마는 그 애가 돌아가던 해 여름, 처음 얼마 동안은 어쩔 줄을 모르고 어리둥절해 있다가 늘 그러구 있을 수도 없고, 또 아이 몇 잃어버리는 동안에 생긴 잠 안 오는 나쁜 버릇이 다시 도져서 몇 해 만에 다시 남의 고궁살이\*를 들어갔지요.”

[A] “네에, 그러세요.”

“그 긴 다섯 해 동안을 그저 모진 일과 고단한 잠만으로 지어 나아오다가, 하루아침은 문득 그것이 죽었으니 찾아가라는 기별이 감옥에서 나왔을 때에야 얼마나 앞이 아득하였겠어요.”

“그러셨겠습니까.”

“사람의 가족은 질기다고 했습니다. 병과 액으로 앞서도 자식새끼 몇 되던 것 하나씩 들썩 이리저리 다 때우기는 하였지마는, 그런 뎨들 왜 안 그럴 수야 있었겠나요마는, 이제는 힘을 줄 데라고는 하나 남지 않고 없어지고, 그것 하나만 믿고 산다 한 그놈마저 죽어 없어졌는데도 사람의 목숨은 이렇게 모진 것이니.”

마음이 제법 단단해 보이던 그도 한 번 내달으니 비로소 젊은이 앞에서 긴 한숨을 견잡지 못하였다. 여기서 처

[B] 음으로 나는 그를 위로할 기회를 얻었으므로,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고 가는 사람도 다 제 명이 아닙니까.”

하여 드리니까 그는,

“하기야 명이지요. 하지만 명이란들 그럴 수야 있습니까. 해방이 되었다 해서 갇혀있던 사람들은 이제 살인 강도 암질\*이라도 다 옥문을 걷어차고 훨훨 튀어서 세상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였다.

“부질없는 말로 이가 어찌 안 갈리겠습니까 — 하지만 내 새끼를 갖다 가두어 죽인 놈들은 자빠져서 다들 무릎을 꿇었지만, 무릎 꿇은 놈들의 꼴을 보면 눈물밖에 나는 것이 없이 되었습니다그러. 애비탈 것 없이 남편이탈 것 없이 잃어버릴 건 다 잃어버리고 못 먹고 굶주리어 피골이 상접해선 너를때기에 깡통을 들고 앞뒤로 허친거리며\*, 엷고 안고 끌고 주추 끼고 다니는 꼴들 — 어디 매가 잡니까. 벌거벗겨 놓고 보니 매 갈 데가 어딴니까.”

“.....”

“만주서 오셨다니깐 혹 못 보셨는지 모르지마는, 낮에 보면 이 조그만한 장터에도 그 험벗은 굶주린 것들이 뜨문히 바닥에 깔리곤 합니다. 그것들만 실어서 보내는 고무산\*인가

아오지\*인가 간다는 차가 저기 와 선 채 저 차도 벌써 나알기에 닳새도 더 되는가 봅시다만. 참다 참다 못해 자원해 나오는 것들이 한 차 되기를 기다려 떠나는 것인데, 닳새 동안이면 닳새 동안 긴내 굶은 것인들 그 속에 어찌 없겠어요.”

그러지 아니하여도 나는 할머니의, 아까 그것들이 엷고, 안고, 끼고 다닌다는 **측은한 표현**을 한 것으로부터, 낮에 수성서 들어오는 길로 맞닥뜨린 사람이 복작거리는 ㉠ **좁은 행상로 위에** 일어난 한 장면의 **짙막한 씬**을 연상하기 시작하는 중이었는데, 노인은 이리고는 말을 끊고 **호응** 깊은 한숨을 들여 쉬었다.

참으로 그 일본 여자는 엷고, 달고 또 하나는 손을 잡고, 아마 아오지 가기를 기다리는 차에서 기어 내려온 듯 품 가까운 행상로 위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허영게 통통 부어오른 낮에 기름때에 전 걸레 같은 형질 조각으로 머리를 질끈 동이고, 엷고, 달리우고, 잡힌 채, 길 바추에 비켜 서 있었다. 머리를 동인 것만으로는 휘둘러우는 몸을 어찌할 수 없다는 모양으로, 골살을 몇 번 찌푸렸다가는 펴서, 하늘을 쳐다보고, 또 찌푸렸다가는 펴서 쳐다보고 하기를 한참이나 하며 애를 쓰는 것을 자기는 유심히 건너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이윽고 그는 정신이 들었는지 지척지척 걸어 들어와 광주리며 함지며, 채두렁이 같은 데에 여러 가지 먹을 것을 담아 가지고 나와, 혹은 섰기도 하고, 혹은 앉았기도 한, 여인 행상꾼들 앞을 지나쳐오다가 문득 한 여인 앞에 서서 발부리에 놓인 광주리의 속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이었다.

“한 개에 오 원씩.”

**행상의 여인**네는 허리를 꾸부리어 광주리에서 속에 담기었던 배 한 개를 집어 들고 다른 한 손을 활짝 펴서 **일본인 아낙네** 눈앞을 가리우며, 아낙네는 실심한 사람 모양으로 한참 동안이나 자기 눈앞을 가리운 활짝 편 그 손가락을 멀거니 바라만 보고 있었다.

뒤에 달린 여덟 살 난 **사넬미\***가 엉겅퀴를 움켜잡고 비어 틀듯이 앞으로 떠밀고 그보다 두어 살이나 덜 먹었을, 손을 잡혀 나오던 **어린 계집아이**가 어미의 손을 끌어당기었다. 그리고 **엷힌 것이** 떼 **띠개\***에서 넘나와 두 손을 내어 뺨으며 어미의 어깨 너머를 솟아오르려고 한다.

“이것들이 이렇게 야단이야요.”

**세 어린것**의 어머니는 참다 못하여 일본말로 이러며 고개를 개우뚱하고는 **행상** 여인의 눈동자를 들여다보는 것이었다.

애걸이 없었다기로서니 이것들이 어찌 그것만으로 덜 비참할리가 있을 정경이었을 것이나.

- 허준, 「잔등(殘燈)」 -

\* 고궁살이: 고공살이. 남의 집 살이.  
 \* 암질(暗質): 어리석은 천성이나 성질.  
 \* 허친거리며: 발을 헛디뎈 균형을 잡지 못해 이리저리 쏠리며.  
 \* 고무산, 아오지: 함경북도에 있는 곳으로, 고무산은 농산물과 목재의 집산지였고 아오지는 석탄 산업 시설이 있었음.  
 \* 사넬미: 사내아이의 방언.  
 \* 띠개: 주로 아이를 업을 때 쓰는, 너비가 좁고 기다란 천을 이르는 방언.

39. 윗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노인’은 ‘그 애’가 죽기 전에는 고공살이를 경험한 적이 없다.
- ② ‘아이 몇 잃어버리는’ 슬픔에도 불구하고 ‘노인’은 불면의 고통을 겪지 않았다.
- ③ ‘행상의 여인네’는 ‘일본인 아낙네’에게 돈을 받지 않고 과일을 주었다.
- ④ ‘노인’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자식이 옥중에서 죽는 순간을 보지 못했다.
- ⑤ ‘사넬미’, ‘어린 계집아이’, ‘업힌 것’ 등 ‘세 어린것’은 ‘행상의 여인네’에게 구걸하고 있었다.

40. 다음의 학습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학습활동** 다음을 작가가 작성한 창작 노트의 일부라고 가정하자.  
 ㉠~㉥이 [A], [B]에 실현된 양상을 파악해 보자.

- ㉠ 대화를 통해 인물 간의 관계를 드러낼 것.
- ㉡ 비유적 표현을 사용할 것.
- ㉢ 서술과 대화를 결합해 사용할 것.
- ㉣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는 표현을 활용할 것.
- ㉤ 대상을 지칭하는 표현을 다양화할 것.

- ① ㉠은 [A]에서 ‘노인’과 ‘나’의 갈등을 해소하는 장치로 실현되었군.
- ② ㉡은 [B]에서 ‘사람의 가족은 질기다고 했습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실현되었군.
- ③ ㉢은 [B]의 ‘마음이 ~ 하였다’에서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기 위해 서술과 대화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실현되었군.
- ④ ㉣은 [B]에서 ‘긴 한숨을 건잡지 못하였다’를 통해 실현되었군.
- ⑤ ㉤은 [A]와 [B]에서 동일 인물을 ‘그 애’, ‘그것’, ‘그놈’으로 바꾸어 부르는 방법으로 실현되었군.

41. ㉠을 참고할 때,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의 회상을 통해 떠오른 인물의 외양과 행동을 묘사하고 있다.
- ② 나의 회상 속에는 ‘자기’와 인물들 간의 외적 갈등이 드러나고 있다.
- ③ 나의 회상을 통해 현재의 ‘자기’가 과거 속의 자아를 부정하고 있다.
- ④ 나의 회상을 통해 인물이 처한 실제의 상황을 환상적 분위기로 그려 내고 있다.
- ⑤ 나의 회상 속에는 인물의 현재의 처지와 미래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4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잔등』에서 서술자인 ‘나’는 해방 전후 우리 사회의 모습을 냉정하게 인식하기 위해 대상과의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잔등』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제삼자의 정신’이란 말은 이를 암시한다. 또한 귀로에서 접한 인물들을 통해 같은 인간으로서 지니는 측은지심을 드러냄으로써 관용의 정신을 발휘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노인이나 잔류 일본인 등과의 만남은 주목할 만하다.

- ① ‘일본인 아낙네’의 아이들이 ‘야단’인 모습을 ‘비참’하다고 한 것에서, ‘나’의 객관적 태도에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어.
- ② ‘일본인 아낙네’가 자신의 아이들과 함께 행상로 위에서 있는 모습을 떠올린 것에서, ‘나’가 ‘노인’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었음을 알 수 있어.
- ③ ‘노인’이 자신의 자식을 죽인 사람들의 처지가 바뀐 것을 보고 ‘눈물’이 난다고 한 말에서, ‘노인’이 그들에 대해 연민을 느꼈음을 알 수 있어.
- ④ 잔류 일본인에 대한 ‘노인’의 마음을 ‘측은한 표현’이라 한 것에서, ‘나’가 제삼자의 정신에서 벗어나 관용의 자세까지 보여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어.
- ⑤ ‘일본인 아낙네’가 ‘실심한 사람 모양으로’, ‘행상의 여인네’의 ‘손가락을 떨거니 바라만 보고 있’는 모습에서, 두 사람이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하늘이 만드심을 일정 고루 하련마는  
**[A]** 어찌 된 인생이 이다지도 괴로운고  
삼십 일에 아홉 끼니 얻거나 못 얻거나  
십 년 동안 갖 하나를 쓰거나 못 쓰거나  
안표(顔瓢)\*가 자주 빈들 나같이 비었으며  
원헌(原憲)\*의 가난인들 나같이 극심할까  
봄날이 따뜻하여 뼈꾸기가 보채거늘  
동편 이웃 쟁기 얻고 서편 이웃 호미 얻고  
**[가]** 집 안에 들어가 씨앗을 마련하니  
올벼 씨 한 말은 반 넘게 쥐 먹었고  
기장 피 조 팔은 서너 되 부쳤거늘  
츄고 주린 식구 이리하여 어이 살리  
㉠ 이봐 아이들아 아무쪼록 힘을 써라  
죽 웃물 상전 먹고 건더기 건져 종을 주니  
눈 위에 바늘 짓고 코로는 휘파람 분다  
올벼는 한 발 뜯고 조 팔은 다 묵히니  
짜리피 바랭이\*는 나기도 싫지 않던가  
환곡 장리는 무엇으로 장만하며  
㉡ 부역 세금은 어찌하여 차려 낼꼬  
이리저리 생각해도 견딜 수가 전혀 없다  
장초(莨楚)의 무지(無知)\*를 부러워하나 어찌하리  
시절이 풍년인들 아내가 배부르며  
㉢ 겨울을 덥다 한들 몸을 어이 가릴꼬  
베틀 북도 쓸 데 없어 빈 벽에 남겨 두고  
㉣ 술 시루도 버려두니 붉은빛이 다 되었다  
세시 삭망 명일 기제는 무엇으로 제사하며  
㉤ 원근 친척 손님들은 어이하여 접대할꼬  
이 얼굴 지녀 있어 어려운 일 하고 많다  
이 원수 가난귀신 어이하여 여의려뇨  
**[나]** 술에 음식을 갖추고 이름 불러 전송하여  
길한 날 좋은 때에 사방으로 가라 하니  
웅얼웅얼 불평하며 화를 내어 이른 말이  
어려서 지금까지 회로애락을 너와 함께하여  
죽거나 살거나 여월 줄이 없었거늘  
어디 가 뉘 말 듣고 가라 하여 이르느뇨  
우는 듯 꾸짖는 듯 온가지로 험박커늘  
돌이켜 생각하니 네 말도 다 옳도다  
무정한 세상은 다 나를 버리거늘  
네 혼자 신의 있어 나를 아니 버리거든  
위협으로 회피하며 잔피로 여일려나  
**[B]** 하늘 만든 이내 가난 설마한들 어이하리  
빈천도 내 분수니 서러워해 무엇하리  
- 정훈, 「탄궁가(嘆窮歌)」 -

\* 안표: 안회(顔回)의 표주박. 안회는 한 소쿠리 밥과 한 표주박 물로 누향에 살면서도 즐거워하였음.  
\* 원헌: 공자의 제자로 궁핍함 속에서도 청빈하게 살았음.  
\* 짜리피, 바랭이: 잡초의 일종.  
\* 장초의 무지: 『시경』에 나오는 말. 부역으로 고통 받던 백성들이, 무지하여 근심 없는 장초 나무를 부러워하였음.

43.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설득적 어조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추상적 소재를 열거하여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 ③ [가]는 과거 상황에 대한 그리움이, [나]는 현재 상황에 대한 비판이 나타나 있다.
- ④ [가]는 관념적인 문제를, [나]는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제시되어 있다.
- ⑤ [가]는 현실 타개의 어려움과 그로 인한 탄식이, [나]는 의인화된 대상과의 대화가 나타나 있다.

44.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열심히 일해 달라는 부탁으로, 현실의 어려움을 벗어나려는 마음이 투영되어 있다.
- ② ㉡: 부역과 세금을 감당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것으로,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모면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 ③ ㉢: 겨울이 따뜻하다고 해도 몸을 가리기 어렵다는 것으로, 겨울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옷가지도 부족함을 보여 준다.
- ④ ㉣: 술 시루를 방치해 두어 녹이 슬었다는 것으로, 떡과 같은 음식을 해 먹을 형편이 아님을 보여 준다.
- ⑤ ㉤: 친척들과 손님들을 접대할 방도가 없다는 것으로, 도리를 다할 수 없을 것에 대한 염려가 반영되어 있다.

45. [A]와 [B]에 주목하여 윗글을 감상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의 ‘일정 고루 하련마는’에 나타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화자의 신념이 [B]의 ‘하늘 만든 이내 가난’에 이르러서 강화되어 있군.
- ② [A]의 ‘어찌 된 인생이’에 나타난 화자의 비관적 인생관이 ‘짜리피 바랭이’에 이르러서는 낙관적 세계관으로 변화되어 있군.
- ③ 화자의 가난한 삶이 [A]의 ‘이다지도 괴로운고’에서는 탄식의 대상이지만 [B]의 ‘서러워해 무엇하리’에 이르러서는 체념적 수용의 대상으로 변모되어 있군.
- ④ ‘부러워하나 어찌하리’에 나타난 화자의 열등감이 [B]의 ‘설마한들 어이하리’에 이르러서는 우월감으로 극복되어 있군.
- ⑤ ‘이 얼굴 지녀 있어’에서는 화자가 자신의 능력에 대해 자신감을 보이나 [B]의 ‘빈천도 내 분수니’에 이르러서는 그 자신감이 약화되어 있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